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0

## 연화보살

쌍계사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다. 천개산 산자락을 넘어오는 삭풍이 법당 기왓장을 뜯어버릴 듯 거세게 불었다. 절 앞으로 흐르는 개울물도 푹푹 얼어붙어 세수하려면 도끼를 들고 얼음을 깨야 했다.

최녹천은 킁킁한 꼭두새벽에 나가 도끼로 얼음을 깨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절 대중이 세수를 하는 순서는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목탁을 치며 도량석을 하는 법상 부전스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새벽예불을 집전하는 법경 주지스님, 그 다음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연화보살 차례였다. 관음사에서 은사스님을 시봉하며 살다가 잠시 들른 법상은 쌍계사 주지스님인 법경의 사제였다.



최녹천이 늦잠을 자버린 탓에 주로 사시에불 때 독경하는 법상 부전

스님이 도끼를 찾아 들고 얼음을 깬 적도 있었다. 바로 최녹천이 골아 떨어져 통잠을 자버린 그날이었다. 최녹천은 사시예불 전에 주지스님이 불러 주지채 방으로 올라갔다.

“절에서 살기가 힘들지요?”

“아니어라우. 어저께 천개산 잔등을 타고 천태봉까정 올라갔더니 겁나게 심들었던 거 같그만요. 밤에 기도하는 일도 빼먹고 폭 자부렀습니다요.”

“기도는 날마다 정해진 시각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허나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는 정성이 중요해요.”

“예, 영념허겠습니다요.”

“내가 거사님을 부른 이유가 있소. 청자정병 앞에만 있으면 강한 기운을 받는데, 그걸 알고 있소?”

“강헌 기운이 뭇인디요? 참 들어보는 소리그만요.”

“초하룻날 관음사에 계신 은사님을 뵙고 돌아온 날은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청자정병 앞에만 있으면 내 몸에 활기가 생겨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상스님도 청자정병 앞에서 독경이 더 잘된다고 그러지요.”

“스님, 봄 가마에 또 청자정병을 맵근다른 정성을 더 들여볼겠습니다요.”

“백련사나 관음사 모두 청동정병을 쓰고 있지요. 내 말 잊지 말고 앞으로 신경을 써봐요.”

“월주 청자빛깔로 정병을 반다시 맵글어 두 절 모두 보시허겠습니다요.”

“여기 쌍계사 불단에 놓인 거사님의 청자정병도 좋아요.”

“아니그만요. 지 양심을 어처케 속이겠습니까요. 시방 불단에 있는 것은 청자빛깔이 아니라 꾸정꾸정헌 뇌록색이지라우. 청자빛깔은 잔잔헌

탐진바닷물멩기로 맑지라우.”

“어쨌든 청자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나온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요, 나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법상스님도 경험한 일이니까.”

법경은 잠시 눈만 꺾겨리다가 법상 부전스님이 청자정병 앞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법상은 몸이 피곤하면 목소리가 탁성으로 변하고 목이 곧잘 잠기는데, 청자정병 앞에서 독경을 하면 원래의 맑은 목소리가 우렁우렁 나온다는 것이었다. 최녹천은 법경 주지스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신반의했다.

“스님, 지도 앞으로는 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법당으로 올라가 청자정병 앞에서 허겁니다요.”

“그렇게 한 번 해봐요. 나같이 영험이 있을 테니까.”

그날 밤부터 최녹천은 초저녁마다 법당으로 올라가 청자정병 앞에서 절하면서 기도했다. 기도는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관음기도였다. 숨이 든 좌복에 앉기는 하지만 법당 마룻바닥은 살얼음같이 차가웠다.

뿐만 아니라 법당 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찬바람은 목덜미를 에는 듯했다. 그래도 오롯이 기도하고 나면 등에 땀이 배곤 했다. 최녹천이 기도하면서 발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한시라도 빨리 월주청자와 같은 청자를 멩글고 잼그만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밤중이곤 했다. 달이 일찍 사라진 한밤중의 천개산은 깊은 방죽처럼 검푸르렀고, 별들은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는

삭풍에 오들오들 떨었다.

보름달이 중천에 뜬 그날 밤에도 최낙천은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법당 기왓장에 달빛이 쏟아져 내려 처마 밑으로 흘러내릴 듯했다. 그런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방 뒤쪽에서 나무그림자처럼 어른거렸다. 최낙천은 연화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연화보살이 아니여?”

“예, 거사님.”

“한밤중에 무슨 일이여?”

“거사님, 거그 마루에 보약을 놔두었그만요.”

“나 목으라고?”

뚝배기 안에서 보약냄새가 났다. 달빛이 뚝배기 안의 보약까지 비추었다. 보약이 사금같이 빛났다.

“아부지가 마실에서 보낸 보약인데, 지보담 기도힘시로 고상허는 거사님이 몬자 마시지라우.”

“허허.”

최낙천은 고맙기는 했지만 소리 없이 웃으면서 주지스님과 부전스님을 생각했다.

“넬부터는 훗헛 때 스님덜께 갖다드리게.”

“안 그래도 되라우. 스님덜은 약탕기를 끼고 사신께라우.”

연화는 스님들 눈치를 보는 최낙천과 달리 완강했다.

“그라믄 오늘밤만 받겠네.”

“보약은 한번만 묵으믄 아무 소용이 읍지라우. 공께 메칠이라도 요때쯤 마루에 놔두고 갈라요. 빈 뚝배기는 공양허실 때 갖고 오믄 되겠지라우.”

주지채 쪽에서 쿨럭쿨럭 기침소리가 났다. 주지스님이 최녹천과 연화를 보았을 리는 없었다. 만약에 보았다면 모두에게 민망한 일이었다. 주지스님이 연화의 선의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최녹천은 연화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끌었다.

“연화보살, 주지스님께서 이쪽으로 오실지 모르겠네.”

“오메, 나 쪼간 숨겨주씨요.”

최녹천은 연화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뒤 다시 문을 열고 나가 연화의 신발을 마루 밑으로 쑥 밀어 넣었다. 최녹천이 묵고 있는 방 쪽으로 주지스님이 오는 듯 자박자박 발걸음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사, 자고 있소?”

“스님, 방금 기도 마치고 들어왔그만요.”

최녹천은 방문을 열고 나갔다. 범경 주지스님이 큰 염주알을 굴리며 말했다. 염주알이 오도독 오도독, 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한밤중인데 사람 소리가 나서 와 보았소.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가겠소.”

“스님, 잘 주무시지라우.”

“그리고 보니 넌이 입춘이오. 거사가 마을로 내려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소.”

최녹천은 주지스님이 주지채로 올라간 뒤까지 마루에 서 있었다. 달빛이 마루 끝까지 비쳤다. 천개산 골짜기마다 밤안개가 피어나고 있는 듯 보름달 둘레에 희미한 달무리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최녹천이 연화를 안심시켰다.

“스님께서 주지채로 올라가셨으께 벨 일은 읊을 것이네.”

“오메, 가심이 막 벌렁벌렁 해라우.”

연화가 윗목에 오도카니 앉아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있었다.

최녹천은 놀란 새처럼 떨고 있는 연화를 와락 껴안았다. 연화는 최녹천의 완력에 꼼짝 못하고 안겼다. 최녹천의 몸에서는 기도하면서 흘린 시큼한 땀 냄새가 났다. 연화는 땀내를 남자의 냄새로 맡았다.

“연화보살, 고맙네.”

“지를 숨겨줘서 고맙그만요.”

최녹천은 연화를 아랫목으로 끌어당겨 누였다. 그런 뒤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입을 연화의 입에 포갰다. 최녹천이 숨을 헐떡이자 연화는 죽은 듯이 움직이지 못했다. 최녹천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버렸다. 최녹천은 연화의 바지를 먼저 벗겼다. 저고리까지 벗겨주어야 하는데 최녹천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연화보살, 미안허네.”

“오메오메! 지양시릅소.”

최녹천이 그녀의 음부를 더듬자 그녀가 “오메오메!” 하고 자지러졌다. 최녹천은 자신의 거시기를 그녀의 몸속에 용을 쓰며 깊숙이 들이밀었다. 그러자 그녀가 최녹천의 허리를 꼬옥 껴안으며 이리저리 뒹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에 새벽빛이 일렁였다. 한꺼번에 힘을 다 쏟아내버린 최녹천은 방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 가쁜 숨을 골랐다. 그제야 연화가 일어나 주섬주섬 바지를 입었다. 먼동이 방안 깊숙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최녹천이 말했다.

“연화보살, 내가 참었어야 했는디.”

“지도 그래라우.”

연화는 갑자기 짐승처럼 달려든 최녹천을 원망하지 않았다. 방바닥에는 검붉은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연화가 흘린 핏자국이였다. 최녹천은 핏자국을 걸레로 닦아내면서 연화에게 미안해했다.

“연화보살, 내가 어처케 갇아야 할까?”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려야지라우.”

“알았네. 마실로 내려가서 연화를 달라고 말씀드리겠네.”

최녹천은 약속한다는 뜻으로 연화를 다시 껴안고는 입을 맞추었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이부자리 속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않고 누워 있었다. 그때 개울 쪽에서 쓰쓰쓰 쓰쓰쓰, 하고 이른 새벽을 알리는 동박새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가만히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침공양 준비할라든 지방 나가야겠그만요.”

“나도 쪼깐 뒤 나갈라네.”

그러나 최녹천은 코를 골며 곤히 잠들어 버렸다. 최녹천이 잠에서 깬 것은 아침 해가 천태산 산자락을 막 넘어와 비출 때였다. 법상이 최녹천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는 방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거사님, 공양허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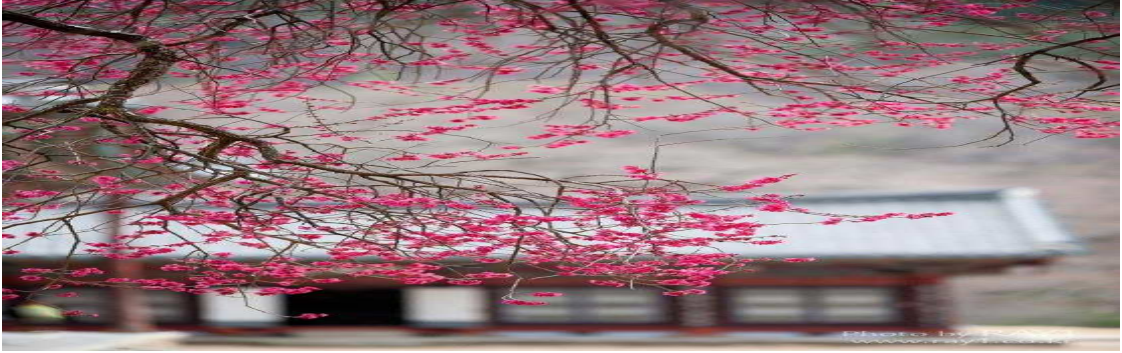
“예, 스님.”

최녹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공양간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젯밤 연화를 껴안은 일이 눈앞에 어른대서였다. 달콤하기도 하고, 씩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생각이 뒤엉켜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꽃샘추위를 한두 차례 앞두고 입춘이 급하게 지나갔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개울가에서 밤새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법당 앞뜰의 오래 된 매화나무가 화답하듯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렸다. 밤안개에 눌러 있던 새벽의 매화향기가 콧속을 후벼 파는 듯했다.

최녹천이 마을로 내려가기 전날이었다. 주지스님이 최녹천을 주지채 방으로 불렀다. 법경 주지스님이 찾자리를 펴면서 말했다.





“입춘이 지났으니 가마 일을 또 하겠구먼.”

“스님, 청자를 또 구워볼랍니다요.”

“겨울 동안 내내 기도를 잘 했으니 영험이 있을 것이요.”

“근디 지는 현몽을 못했그만요.”

최녹천이 현몽을 못한 것은 사실이였다. 쌍계사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상서로운 무엇을 맡기거나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최녹천은 주지스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스님, 절에 올라와 있는 동안 꿈을 벨로 꾸지 못했어라우.”

“우리 스님들은 꿈이 없는 잠을 자게 해달라고 빌지요.”

“지덜허고 아조 다르그만요. 지덜은 자나 깨나 부처님께 원하는 것이 많은디요.”

“부처님은 달이 물에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그렇게 오고 가는 분이지요. 그러니 거사님께 벌써 왔다가 가셨을지도 모르요.”

최녹천은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다관에 우린 만덕산 작설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연화보살이 마을에 내려가 아버지에게 말했는가 보오. 보살의 아버지가 딸을 주겠다고 허락했소. 이것이 부처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스님, 정말인게라우?”

“연화보살 아버지를 만나 직접 들었소. 연화보살이 이제 절에서 내려가 혼인도 하고 다른 길을 갈 때가 됐다고 말해주려고 갔다가 들은 얘기라오.”

“스님께서 부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헐 말이 읊그만요. 지가 시안 내내 기도헌 가피라고 헐 수밖에 읊그만요.”

“하하하. 이제 믿겠소?”

주지스님이 큰소리로 웃었다. 연화와 최녹천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끔 도와준 분이 있다면 쌍계사 부처님일 것이라는 웃음이었다. 최녹천은 주지스님의 너털웃음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못했다.

대신 마을로 내려가기 직전에 주지스님의 얘기를 연화에게 전했다.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얼굴을 붉혔다.

“지는 아버지한테 들었그만요. 근디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라우.”

최녹천은 한걸음에 마을로 내려가 연화 아버지를 찾았다. 연화 아버지는 법경 주지스님하고 약속했던 대로 사냥용 화살과 활을 마당에 꺼내놓고 불에 태우려고 했다. 법경이 연화가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죄업을 씻고자 쌍계사에서 공양주를 했듯 이제는 아버지 김씨가 연화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냥을 단념하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최녹천이 마당에 엎드려 큰절부터 했다.

“주지스님께서 말씀했습니다요.”

“나는 연화가 원하는 대로 따를라고 허네. 연화도 곧 마실로 내려와

살 것인게 그리 알게.”

“연화를 고상시키지 않겠습니다요.”

“홀애비가 키운 자식인게 쪼깐 버릇이 읍드라도 자네가 이해힘서 살게.  
내가 바라는 것은 고것뿐이네.”

“예, 아버님. 영념해서 잘 살겠습니다요.”

그런데 최녹천은 마을로 내려온 연화와 바로 한 방에서 살지는 못했다. 봄 가마 준비로 즉시 동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가마 일을 시작하면 여자와 한 이불 속에서 자지 않는 것이 도공들의 전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녹천은 작년 가을에 청자그릇들을 많이 빚어 놓기는 했지만 봄 가마를 앞두고 또 다른 일이 많았던 것이다.

더구나 봄 가마는 초벌구이 청자들을 뒤쪽에 재임하기로 했으므로 최녹천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유약의 잿물과 조개가루를 만드는 일은 지난 가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는 노비 꺼먹이가 나서서 도왔다. 연화도 가마를 오가며 잔심부름을 했다. 노총각인 토기장 조씨가 부러워했다.

“아이고, 녹천이. 제주도 좋소잉. 어처케 연화를 델꼬 사는지 나 쪼깐 갈쳐주씨요.”

“먼 비결이 있대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거내꾼 김씨가 토기장 조씨에게 말했다.

“쌍계사 부처님이 도와주셨당마. 총각 딱지 델라든 쌍계사 부처님헌테 기도허랑께.”

“나도 쌍계사 가서 기도했당께.”

“기도혈라든 녹천이맹키로 시안 내내 머시기 때까지야제잉.”

토기장 조씨와 거내꾼 김씨가 토기를 빚으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최녹천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대꾸하지 않았다. 최녹천은 여름이 되면 자신의 가마를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 족장 가마는 봄까지만 이용할 속셈이었다.

그런데 월주가마와 탐진가마는 짓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탐진도공들은 그 차이를 아무도 몰랐다. 월주가마는 벽돌로 짓기 때문에 탐진가마보다 네댓 배쯤 큰 대형가마가 가능했지만 탐진가마는 흙과 돌만으로 쌓아올리므로 소형가마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녹천은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가마를 갖고 싶었다. 불대장 안씨와 꺼먹이, 연화, 연화 아버지가 거들어준다면 가마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계속>